

6·25 이후의 6·25



[근현대사 자료집 1] 북한의 대한민국 도발사 60년



60주년을 맞은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천안함 어뢰로 되돌아온 대북퍼주기,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6 ■ 1950년 6월 25일 … 어찌 우리 이 날을 잊으리

1950년 6월 25일 새벽, 대규모 포사격을 시작으로 북한은 기습 남침했다. 북한군은 최신 소련제 T-34탱크를 242대나 보유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국군은 전차를 파괴할 아무런 무기도 없었다. 국군은 육탄으로 적의 탱크에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북한군은 작전계획대로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다.

당시 경상도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이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했으며, 38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1950년 9월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국군은 반격을 시작했다. 전세를 반전시킨 유엔군은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 10월에는 평양을 수복하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한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2월에는 북한지역에서 철수했고, 38선이 돌파된 후인 1951년 1월 4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서울에서 철수, 전선은 현재의 휴전선 일대로 고착됐다. 이후 1953년 7월 27일에 비로소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북한군과 중공군) 사령관 간에 휴전이 조인됐다.

한편 6·25전쟁은 유엔의 깃발 아래 유엔군 사령부가 구성되어 침략자를 저지하려고 나선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Contents

03_	1950년 6월 25일 어찌 우리 이 날을 잊으리
05_	현실의 광기와 인권의 부재
06_	6·25 이후 남북한 어떻게 변했나
08_	6·25 이후의 6·25
10_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들
15_	총격과 분노의 천안함
18_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1. 1951년 6월 9일 한 소녀가 동생을 업고 M-26 탱크 옆을 걷고 있는 모습. 소녀의 눈망울에는 전쟁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
2.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인민군.
3. 1950년 7월 북한의 공세를 피해 남쪽으로 떠나는 피난행렬.
4. 1950년 9월 15일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하고 있다.
5. 6.25 당시 북으로 끌려가고 있는 남북자들.
6. 목숨을 잃은 한 군인의 시신 옆에 총알이 관통한 철모가 놓여 있다.



1949년 북한정부 대표단이 스탈린을 방문했다.(가운데가 김일성). 이듬해 북한은 1950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대한민국을 침략했다

6·25전쟁은 한국 국민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려는 김일성 공산주의 세력의 공세로부터 자유를 지켜낸 전쟁이었다. 6·25전쟁으로 남·북한은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남한 측 군인의 사망·부상·행방불명 피해자는 98만 7,000명, 유엔군 피해자는 15만 1,500명이었다. 민간인 피해는 사망·부상·행방불명을 포함하여 총 80만 4,600명에 달하였다. 전쟁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야만적 폭력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북한군은 점령지에서 인민재판을 통해 지주와 공무원을 인민의 적으로 몰아 살해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후퇴하던 북한군은 대전교도소에서 6,000명, 전주교도소에서 1,000명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또한, 북한군은 전쟁 기간에 8만명 이상의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 납치하였다.

물적 피해도 엄청났다. 남한의 경우 금속·기계·화학·섬유·식품 등 제조업 시설의 40%가 파괴되었다. 그 밖에 주택·도로·철도·교량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은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철저히 파괴하였다.

6·25전쟁 관련 문서 공개

1994년 6월 2일 크렘린궁에서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러시아의 옐친(Boris N. Yeltsin)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검은 서류상자 하나를 건넸다. 6·25전쟁을 전후하여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여러 문서의 사본이다. 거기에는 김일성이 남침 계획을 스탈린에 건의하고,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궤멸될 때 소련군과 중공군의 즉각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는 현재 서울의 외교사료관에 보관 중이다.



■ 학살의 광기와 인권의 부재

1952년 <대한민국통계연감>은 전쟁 중에 살해된 민간인이 12만 2,799명이라고 하였다. 그와 별도로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은 전쟁 중에 북한군과 빨치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과 민간인을 조사하여 <6·25사변 피살자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현재 국립 중앙도서관과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다.

이 명부에 실린 피살자는 모두 5만 9,964명이다. 전남이 4만 3,511명(72.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북 5,603명, 충남 3,680명, 경기 2,536명, 서울 1,282명, 강원도 1,216명, 경남 689명, 충북 633명, 경북 628명, 제주 23명의 순서이다.

그 밖에 철도경찰 62명이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4만 4,008명, 여자가 1만 5,956명이었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남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2만 1,225명이 영광군의 주민이었다. 영광과 이웃한 나주, 장성, 함평, 고창(전북)에서도 대량의 피해가 있었다. 전남 영암에서도 7,000명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 영광군의 피해자 가운데 7,914명이 여자이고, 열 살 이하 어린이가 2,500명이나 되었다. 수많은 여인이 어린이를 안고 울부짖다가, 아이와 함께 살해된 것이다.

학살만이 아니었다. 북한군은 8만 2,959명의 남한 국민을 북한으로 납치하였다(<대한민국통계연감>, 1952). 그 외에도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전쟁포로가 있다. 납북자에 대해서는 최근 유가족들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들의 생사 확인과 피해보상 운동을 벌이고 있다.

· 6·25 피해 현황

(자료 : 통계청)

국군의 인명 피해	물적피해
전사 : 58,809 부상 : 178,632 실종 및 포로 : 82,310 계 : 319,759	민간가옥 : 612,000호 각급학교 : 15,427동 (4,023 개교) 경찰서 : 1,931동 (1,176 개소) 행정기관 : 2,700동 의료기관 : 1,500동 금융기관 : 1,100동 생산업체 : 13,100동 종교단체 : 800동 공공기관 및 단체 : 12,100동
연합군의 인명 피해	
전사 : 36,991 부상 : 115,648 실종 및 포로 : 6,944 계 : 159,583	항만시설 : 100개소 철로 : 329 Km 교량 : 312Km 전선 : 61Km 공업시설 : 43% 파괴 발전시설 : 41% 파괴 탄광시설 : 50% 파괴 가축 : 2,928,180두
민간인 피해	
사망(학살당한 인원 포함) : 370,599 부상 : 229,625 납치 : 84,532 행방불명 : 303,212 피난민 : 240만 전쟁 미망인 : 20만 전쟁 고아 : 10만	
총 피해액 : 410,589,759,000원 (2,281,054,217 달러)	

인천상륙작전으로 수세에 몰린 북한군은 대전교도소에서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여 땅에 파묻었다.



■ 6·25 이후 남북한 어떻게 변했나?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 규모는 714배(달러기준) 성장했다. 6·25 전쟁이 끝난 해이자 통계 작성 시점인 1953년 473억원(13억달러)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2008년 1023조 9천억원(9287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국제 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도 커져 2000년에는 세계 12위를 기록했고 2002~2003년에는 11위까지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1953년 67달러, 1963년에는 100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산업부흥기를 거쳐 1977년에는 1,000달러, 1995년에는 1만달러, 2007년에는 선진국 진입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2만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도 1948년 2,000만 명에서 2008년 약 2.5배 증가한 4,860여명을 기록했다. 특히 총 인구의 21.5%인 약 1,040만명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총 인구의 8.5%에 불과하던 1948년(170만 8,000명)에 비하면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산업과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경제 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근로자의 월 평균 수입도 늘어났다. 2007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57만 7,000원으로 1970년대에 비해 126배가 올랐다.

삶의 질이 윤택해졌음은 자동차, 전화 보유수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 1만 4,703대였던 자동차 수는 2008년 1,667만대로 1,10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OECD회원국 가운데 24번째로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했다.

625이후 보릿고개를 넘고 새마을 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대국으로부터 무려 600억달러(현재 환율로 대략 70조원)를 원조 받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도 이제 어려운 나라에 원조를 하는 위치로 탈바꿈 한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 국가를 거쳐 OECD 원조국가로 바뀐 첫 번째 사례로서 세계 역사에 기록됐다.

세계 최빈국에서 짧은 기간내에 100% 원조국으로 변모한 우리나라 원조 역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배를 벗어난 직후부터 시작 됐다. 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국가운영의 100%를 대외원조에 의지했었다.

분단 후 앞서가던 북한 경제는 몰락

해방 직후 1945년 북한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 진출을 꿈꾸던 일본이 군수시설을 북한에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19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형편이었다. 그러나 1989년 동유럽의 헝가리, 체코, 폴란드, 동독, 루마니아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붕괴했으며, 1991년에는 소련마저 해체되면서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북한 내부 모순과 겹치면서 북한 경제를 더욱 곤두박질쳤다. 1990~1998년에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공장자동률은 20%를 밑돌았다. 협동농장은 노동의 유인이 없어 생산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식량 부족이 극심해졌다.

1992년부터 식량배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1994년부터 몇 년 동안은 거의 식량배급이 끊어졌다. 북한 주민들은 그때까지 대부분의 식량을 배급에 의존해 왔기에 배급이 중단되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1990년대 당시에는 북한에서 굶



기근으로 아사의 위험에 처한 북한 아이들.



외국인 관광객이 찍은 북한의 모습. 유난히 마른 소가 눈에 띈다

어 죽은 사람의 수가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경제상황은 더욱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살인적인 인플레이가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폐개혁 직후 1kg에 20원 하던 쌀값이 600~800원으로 30~40배 올랐다. 당국이 시장을 폐쇄하고 주민 보유 화폐를 '강탈'해 가니 주민들이 쌀을 비롯한 모든 재화를 수중에 쥐고만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아사자가 생기고,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적 실패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억제한 채 계획 경제를 강화한다는 정책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국제적 고립의 강화, 폐쇄적이고 대결적인 대외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청와대를 깨부수고 박정희의 목을 따서 차를 탈취하여 북으로 달아 내려 했다.” 체포된 북한 무장 간첩 김신조가 유일하게 혼자 살아서 거침 없이 내뱉은 말이었다

6·25 이후의 6·25

북한의 대한민국 도발사 60년

6·25전쟁 후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은 1950년대 말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0년 서해(西海) 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격침 사태에 이르렀다. 북한은 국가원수 암살 기도를 비롯하여 무장공비 침투 등 지상·해상·공중·해외에서 모두 4백70여 건에 걸쳐 3,738명에 이르는 주요 인사와

민간인 납치, 그리고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 다양한 형태의 만행을 자행하며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조성하여 왔다.

이러한 북한의 대한민국을 향한 무력 도발을 (1) 국가원수 암살 기도, (2) 항공기 테러, (3) 무장공비 침투, (4) 각종 납치, (5) 서해 무력 도발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1) 국기원수 암살 기도

1·21 청와대 기습(68. 1. 21)

북한 민족보위성 경찰국 소속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위해 비밀 침투했다. 이들은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들어왔다가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드러나자 수류탄과 기관총을 난사했다. 무장공비 31명중 28명은 사살됐고 2명은 도주하였으며 김신조는 생포했다. 이 사건으로 최규식 중로경찰서장이 순직하는 등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미수(70. 6. 22)

한국전쟁 20돌을 앞둔 1970년 6월 22일 새벽 서울 국립 현충원에 북한 공작원이 잠입하여 폭약을 장치했다. 다행히 폭약설치중 폭약이 폭발해 미수에 그쳤으며 그 자리서 간첩 1명이 즉사하고 1명이 붙잡혔다.

광복절 대통령 저격 사건(74. 8. 15)

1974년 8·15 광복절 행사장에서 벌어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격미수사건은 북한의 대표적인 저격 사건이었다. 경축식장 1층 뒤쪽의 해외 교포석에 자리잡고 있던 저격범인 북한의 문세광은 박대통령을 향해 저격했는데 3탄이 단상에 앉아 있던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머리에 맞았다. 박대통령은 저격범이 체포된 뒤에도 의연히 경축사를 계속 낭독하였으며, 경축식은 예정대로 끝났다. 그러나 불과 22초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육영수 여사는 49세를 일기

로 운명하였다. 문세광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74년 12월 21일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 (83. 10. 9)

아웅산 국립묘지 암살 만행은 북한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친선 방문중이던 한국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의 아웅산 국립묘소 참배를 이용, 암살하기 위해 사전에 이 묘소 건물 천장에 설치한 원격조종폭탄을 폭발시켜 한국의 부총리와 장관등 수행원 17명을 순국케 하고 14명을 부상시키는 천인공도할 테러를 감행하였다.

미얀마 당국의 수사결과 이 사건은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은 북한군 경찰국 특공대 소속 진모(某) 소좌, 강민철 대위, 신기철 대위 등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피격 당하고 쓰러지는 모습.



아웅산 국립묘지 암살 만행 현장.

6·25 이후 북한의 주요 대남 도발 사례

1955. 5 대성호 납북(선원 10명 납북).
1967. 1 해군 당포함 피격 침몰(승무원 79명중 사망 39명, 부상 40명).
1968. 1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최규식 종로경찰서장 순직).
1968. 1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 미군 1명 사망, 82명 귀환.
1968. 10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승복 등 18명 사망).
1969. 6 흑산도 간첩선 침투(민간인 15명 살해).
1969. 12 대한항공 YS-11 항공기납치 (승객 승무원중 39명 귀환, 12명 억류).
1970. 6 해군 방송선 납치 (승조원 20명 납북).
1970. 6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
1974. 8 광복절 대통령 저격사건(육영수 여사 사망).
1975. 9 전북 고창 무장공비 침투사건(경계병 3명 전사, 2명 부상).
1977. 7 백건우·윤정희 부부 납치 미수.
1977. 8~78. 8 서해 고교생 납치사건(고교생 5명 납북).
1978. 1 신상옥·최은희 부부 납치(5년간 북에 억류).
1978. 4 고상문씨 노르웨이서 납북.
1980. 3 한강하구 무장공비 침투(3명 발견 전원 사살).
1980. 6 충남서산 무장 간첩선 침투.
1982. 5 동해안 2인조 무장공비 침투(1명 사살, 1명 도주).
1983. 10 이응산 묘소 폭탄 테러(서석준 부총리 등 17명 사망, 14명 부상).
1983. 12 부산 다대포 간첩 침투(2명 생포).
1987. 1 동진호 납북(어부 12명 피랍).
1987. 11 KAL858기 폭탄 테러(승객과 승무원 115명 전원 사망).
1993. 11 강화 교동도 무장공비 침투.
1995. 10 충남 부여 무장공비 침투(1명 사살, 1명 생포).
1996. 9 강릉 잠수정 침투(국군, 경찰, 민간인 4명 사망).
1996. 10 잠수정 사건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이 있은 후 한국 외교관 최덕근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살해.
1997. 2 이한영 피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이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2명의 청부 살인자에 의하여 살해됨).
1997. 7 14명의 북한군이 남한측의 철수하라는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폭 4 km 비무장지대의 중간 지점인 군사분계선 남방 70미터 지점까지 침범. 이 침입으로 쌍방간에 23분간의 격렬한 총격전 발생.
1998. 6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비무장지대 남쪽 남한의 속초시 근해에서 남한의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됨.
1999. 6 제 1 연평해전(해군 7명 부상).
2002. 6 제 2 연평해전(6명 전사).
2008. 7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2009. 11 대청해전 . NLL을 무단 침범한 북한 함정이 선제공격 후 반포된 뒤 도주.
2010. 3 천안함 격침(46명 전사).





사진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6. 8)

일단의 북한 병사들이 도끼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판문점 비무장 지대 중립 지역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던 미군과 한국군을 공격하여 2명의 미국 육군 장교를 살해하고, 4명의 미군 사병 그리고 5명의 한국군 병사에게 부상을 입혔다.

(2) 항공기 테러

KAL YS-11기 납치(69. 12. 11)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의 KAL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승객으로 위



KAL 858기를 장하고 타고 있던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폭파하고 납치됐다. 이후 30명은 한국으로 귀환하고 체포된 김현희를 12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원들이 연행하고 있다.

KAL 858기 폭파 테러(87. 11. 28)

1987년 11월 28일 밤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사전 장치한 폭탄에 의해 공중 폭파된 사건이었다. 이 여객기에는 중동에서 귀국하던 한국인 근로자 등 승객 93명과 외국인 2명, 승무원 20명 등 모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3) 무장공비 등 각종 침투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68. 10. 30~11. 2)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반정부 민중봉기를 일으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울진·삼척 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을 침투시킨 사건이다. 침투한 무장공비들은 11월 3일 주민들을 모아놓고 남자는 남로당, 여자는 여성동맹에 가입하라고 총검으로 위협하였다.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머뭇거리자 대검으로 찌르는 등 만행을 자행하고 뒤늦게 도착한 주민은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사 초등학교 계방분교 2학년예 재학 중이던 이승복(당시 10세) 어린이까지 무참히 살해하는 등 20여명이 사망했다.

흑산도 간첩선 침투(69. 6. 12)

남파 간첩과 점선, 이들을 월북시키기 위해 전남 신안 대흑산도로 북한의 간첩선이 침투했다. 섬으로 상륙하던 북한 공작원 3명을 사살하고 다음날 도주하던 6명을 추가로 사살.

강릉 잠수정 침투 등(96. 9. 18)

공작원 침투 임무를 위해 내려왔던 북한의 잠수정이 속초 해역에서 좌초됐다. 타고 있던 공작원들은 강원도 일대에 상륙했으며, 우리 군경이 추적하여 14명을 사살하고 조타수 이광수를 생포했다. 98년 6월 22일에는 속초시 동쪽 바다에서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한척이 어선이 내려놓은 끈치잡이 그물에 걸려 표류하다 해군 함정에 의해 동해안으로 예인됐다. 잠수정 내에서 승조원과 공작원으로 보이는 9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각종 무장공비 침투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는 끊이지 않았다. 75년 9월 11일에는 전북 고창의 전경대 해안초소에서 경계병이 해안 순찰 중 북한 공작원 두 명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아 경계병 3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측도 즉각 응사해 무장공비 2명을 사살했다.

또한 80년 3월 23일에는 한강 하구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우리 초병이 경기 고양 법곡리 한강변으로 침투하던 무장공비 3명을 발견하고 전원 사살했다.

이듬해인 81년 6월 21일에는 충남 서산으로 무장 간첩선이 침투하였으나 우리 군의 사격으로 북한 공작원 아홉명이 사살되고 1명은 생포됐다.

이어 83년 12월 3일에는 부산 다대포에도 간첩을 침투시켰으나 우리측 초병이 발견하고 격투 끝에 생포했다. 이들을 침투시킨 반 잠수정은 우리 고속정과의 충돌로 격침됐다.



부산 다대포 해안에 매복근무 중이던 초병이 침투하는 간첩 두 명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생포했다. 이들을 침투시켰던 반잠수정은 우리 고속정과의 충돌로 격침됐다.



무장공비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사초교 계방분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승복(당시 10세) 어린이를 무참히 살해했다.

(4) 납북 및 납치

53. 7. 27 휴전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우리 국민은 3811명(어부 3710명, 어선 133척 포함)에 달하며, 이들중 494명(어부 440명 포함)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대성호 납북(55. 5. 28) 및 납치

대성호 납북은 한국전쟁 이후 첫 한국 어선 납북사례다. 이 사건으로 대성호 선원 10명이 납북됐다. 이후 북한은 70년 6월 5일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비무장 경계임무 중이던 해군

방송선을 납북하고 87년 1월 15일에는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동진호를 납북했다.

또한 북한은 77년 7월 30일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배우 윤정희 부부를 유고의 자그레브로 유인해 북한으로 납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78년 1월 14일 홍콩에 머물던 배우 최은희씨를 북한 공작원이 기어코 납치했다. 같은해 7월 19일 아내를 찾겠다고 홍콩을 찾았던 신상옥 감독 역시 북한 공작원에 납치됐다. 신상옥·최은희 부부는 납치 5년이 지난 83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했다.

서해고교생 납치(77. 8~78. 8)

1977년 8월과 78년 8월 전남 흥도와 군산 선유도에서 1년 사이에 고교생 5명이 실종됐다. 이후 이 고교생들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음이 밝혀졌다. 2006년 5월 북한이 일본인 피랍자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일본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78년 선유도에서 실종된 학생 김영남이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5) NLL무력화 시도 등 해상공격

해군 당포함 피격 사건(67. 1. 19)

1967년 1월 19일 오후 동해 휴전선 근처에서 명태잡이 어선을 보호하던 해군 제



명태잡이 어선의
월경을 막기 위해
초계 중이던
당포함이 북한
동해안 동굴포대의
해안포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56함 당포함이 북한군 육상 포대로부터 약 20여 분에 걸쳐 200여발의 집중 포격을 받고 침몰했다. 이 교전에서 제56함 승무원 79명 중 39명이 전사하고, 14명이 중상, 16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무사한 장병은 10명뿐이었다. 이 사건은 북한 해군 함정 2척이 고기떼를 따라 해상휴전선 근처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민간 어선 약 70여 척을 납북하려는 것을 발견한 제56함이

어선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고자 북한 해안과 가까운 38도선 해역에 접근하자, 북한의 해안 동굴진지에 위치한 해안 포대에서 약 200여발의 포탄을 퍼부었던 것이다.

연평해전

(제1차 99. 6. 15, 제2차 02. 6. 29)

제 1차 연평해전은 1999년 북한 경비정 6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들어와 한국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침입과 퇴각을 반복하면서 9일 동안이나 버티다가 이를 '충돌식 밀어내기' 전술로 저지하는 한국함정에 북한경비정이 선제사격을 가함으로써 결국 남북 함정간의 치열한 포격전으로 발전한 사건이다. 이 교전에서 북한해군은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경비정 4척이 대파되었으며 북한군 20~30여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입은 반면에 한국은 해군 7명이 부상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제 2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남북 함정 사이의 해전이다.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한 함정 사이의 해전이다. 이 교전으로 6명이 전사했으며,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청해전(09. 11. 10)

북한 경비정이 우리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이에 해군의 고속정이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한 경비정이 남측 고속정에 조준사격을 하며 교전이 발생했다. 우리 해군의 사격으로 북한 경비정이 반파되어 북으로 퇴각한 사건이다.

·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공격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의 천안함



1. 대한민국 2함대 사령부 조계함 천안함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수군이었다.



2.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건만...



3. 기적은 없었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해군 장병들.



4. 구해야한다. 전우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다. 그러나...

7. 상처를 드러낸 천안함이 바지선에 안착되고 있다. 결코 용서할 수도, 용서해서도 안된다.



5. 백령도 남쪽 바다에서 천안함 구조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폭파팀(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잠수복을 입은 채 동료 군인들과 함께 성인봉함에 서있다. 다음날 한 준위는 구조 작업 도중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뒤 구조함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만에 순직했다.

6. 영웅을 보내다... UDT 사나이들 눈물의 군가.



아버지가 떠나는 날, 13살 상주는 눈물을 참았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합동영결식에서 “더 큰 대가를 반드시,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북한제 어뢰의 파편을 공개했다.



영결식은 끝났다. 그러나 이제 남은 몫은 신자들 몫이다. 지난 4월 30일 시민단체들이 천안함 전사자 추모 국민연합을 결성하고 추모와 규탄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눈물로 이별하는 유가족.

바다보다 푸르렀던 그 이름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눈물 그리고 다짐

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 29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과 눈물의 이별을 고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고, 다음에는 절대로 이 같은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해군장으로 치뤄진 영결식 위원장이기도 한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은 “우리는 백령도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되고, 잊어서도 안된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아름다운 우리나라, 소중한 우리 바다를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이 누구든지 끝까지 찾아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젊은 영령들을 추도 하였다.



천안함 46용사들이여,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전우여, 편히 잠드소서’

2010년 3월 26일 밤!
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의
일상은 끔찍한 굉음과 함께 산산조
각 났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충격과
혼란으로 우리는 암흑천지의 바다
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인 천안함은 순식간
에 침몰되었고, 경계던 전우들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몸과 정신이 마비되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한 명 두 명 구조
선에 올랐지만, 당신들의 애끓는
영혼에는 미처 닿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미안합니다.

그대들을 천안함 속에 남겨뒀서 미
안합니다. 그대들과 함께 끝까지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간을 돌아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간절한 기도와 애원에
도 시간은 허무없이 흘러가고 있습
니다.

친구여, 선.후배여, 전우여!

그대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을 위해 이제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못다 이룬 꿈과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서로 만날 때 진심
으로 고마웠다는 말을 들을 수 있
도록 남은 생을 살며, 우리의 바다

를 지켜 낼 것입니다. 비록 처절하
게 두 동강이 났지만 우리 천안함
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안함은 온 국민들의 가슴속에 역
사로 새겨졌으며,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은 애국심으로 되살아나고 있
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46명 전우들의 이름을, 얼굴을.

그리고 그대들의 사랑과 가족을 언
제까지나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곁에 살아있을 전우
여!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갈라놓은 슬픔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입니다.

조국의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
리는 그대들이 가다가 멈춘 그 길
을 다시 이어가고, 걸어갈 것입니
다.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은 비록 짧았
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우정은 참
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먼 훗날 평화로운 그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전우들에게 더 큰 용
기를 주시고 우리의 바다를 굽어
살피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잊지 못할 46명의 천안함 전우들이
여!

여러분들의 영전에 한 송이 꽃을
바치며 보내고자 합니다. 안영히
가십시오.

필 승.
여러분의 전우 김현래 올림.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 29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과 눈물의 이별을 고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고, 다음에는 절대로 이 같은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피구기와 굴종으로 상징되었던 햇볕정책은 이제 완전히 무효가 되었고, 지원과 설득으로 북한의 본질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던 억지주장도 이제는 더 이상 먹혀들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애매모호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이유는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사상 최악의 세습독재 사이비 공산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의 실존적 위협 요인

이라는 사실을 애써서 부정 했던 세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각종 언론 매체와 대한민국의 교육을 장악, 국민들을 호도했기 때문이었다. 천안함에서 전사한 한 병사의 어머니는 '북한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며 더 이상 북한에 퍼주지 말라'며 울부짖었다.

이제 우리 앞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동시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천안함 격침 이후'의 세상이 '천안함 격침 이전'의 세상과 다를 수 없다. 천안함 격침 이후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과거와 별반 달라질 게 없다면 천안함 46명의 희생은 정말로 가치 없는 억울한 죽음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답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서 처신”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특히 지난 10년 좌파 정권 동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주면서 굶실거렸고, 주면서 야단맞았고, 야단맞고 찢찢 뒀었다. 불의에 저항 할 의지가 없었다. 전직 대통령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까지 말했다. 전쟁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항복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평화는 목적이지만 전쟁은 수단임을 알아야 할 국가 지도자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북은 입만 열면 싸우겠다고 협박하고 남은 그럴 때 마다 전전 공승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상황이었다.

현대 국민 국가들의 형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찰스 톨리(Charles Tilly) 교수는 “국가는 전쟁의 산물이고 전쟁은 국가

의 산물”(war made the state, and state made war) 이라는 단순 명료한 국가의 본질을 밝혀내었다. 국가란 전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에 관한 이 같은 원초적 진리를 알기 시작한 것은 수 천 년도 더 된 일이다. 한문 글자 중에 나라를 의미하는 國이란 글자가 있다. 이 글자는 사람(口)이 창(戈)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영역(口)을 상징한다. 현대 국가의 3 요소인 영토(口)와 국민(口) 과 주권(戈) 이 모두 포함 되어 있는 놀라운 글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아마도 지난 10여년) 우리는 창을 써도 안 되고, 쓸 수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창을 쓸 수 없는 나라, 즉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혹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나라는 정상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전쟁을 결단 할 수 있는 의연한 나라가 되자는 말이다. 전쟁을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나라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전쟁과 군을 상징하는 武(무)라는 한자는 창(戈)이라는 글자와 중지(止) 라는 글자가 합성된 말이다. 전쟁과 전략은 역설(逆說)의 영역이다. 우리가 전쟁을 결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창 쓸 일 이 중지 될 수 있다는, 즉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역설의 논리를 이해하자. 이순신 장군은 ‘살려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하면 살 것’ 이라 가르쳤고 로마인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역설했다.

천안함은 우리에게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Freedom is not free!)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스스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용기 없이는 아무 것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6·25 이후 의 6·25

이 책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6·25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북한의 대남 도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용기 있게 나서 싸우며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간다.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아 그 비극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6·25 당시의 참상과 현재의 대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었다.

6·25가 가져온 전쟁의 참상과 그 교훈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 점령지에서 인민재판을 통해 지주와 공무원을 인민의 적으로 몰아 살해하였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후퇴하던 북한군은 대전교도소에서 6,000명, 전주교도소에서 1,000명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또한, 8만명 이상의 남한 국민을 납치하였다. <대한민국통계연감>은 전쟁 중에 살해된 민간인만 12만 2,799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6·25 이후의 6·25

6.25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됐거나 사망한 한국인은 최소 4119명에 이른다. 1953년 7월 정전 이후 국·내외에서 납치된 인원만 3811명이다(2009년 발간 통일백서). 1967년 해군 당포함 피격 침몰 사건(39명)과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18명 사망),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115명 사망)과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17명 사망), 이번의 천안함 사건(46명 사망) 등 북한의 테러, 정규군·무장공비에 의한 공격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유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 29일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해군 장병 46명과 눈물의 이별을 고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고, 다음에는 절대로 이 같은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천안함은 우리에게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Freedom is not free!)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